K bank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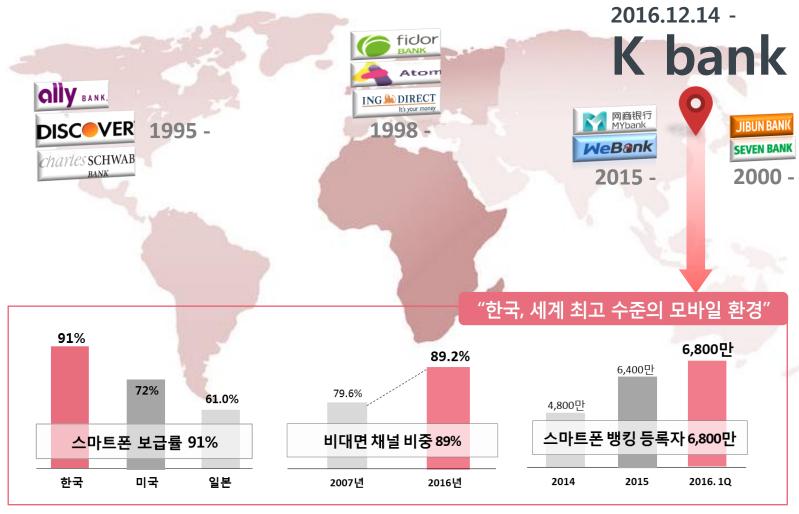
금융 생활의 새로운 기준

Contents

- 1. 인터넷은행의 탄생
- 2. K bank 준비법인에서 K bank로
- 3. 혁신의 방향성
- 4. No. 1 모바일 은행을 향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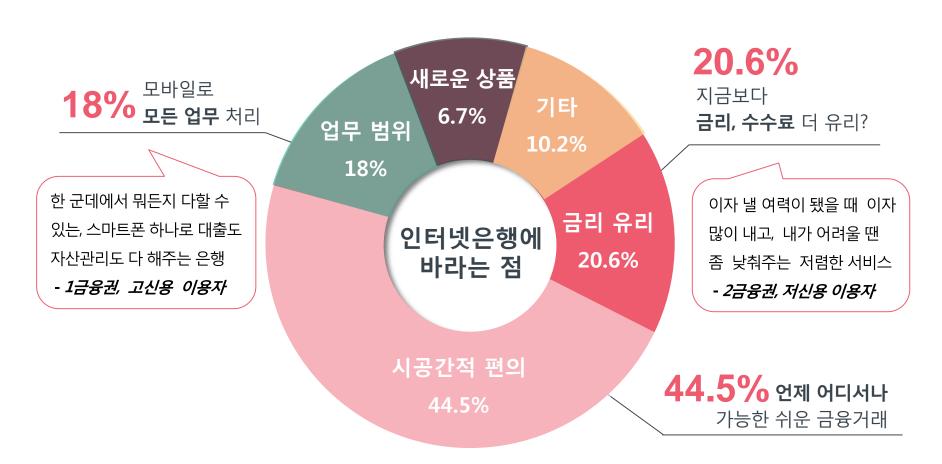
인터넷은행의 탄생

■ 스마트폰 시대에서 출발하는 한국, 늦었지만 혁신의 속도는 빠를 전망



^{*} 자료: TNS, KT경제경영연구소(2016), 한국은행 2016년 1/4분기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(2016)

대한민국의 고객은 모바일로의 단순 채널 확장을 넘어한 곳에서 모든 업무가 가능한, 가장 쉽고, 나를 알아주는 은행을 원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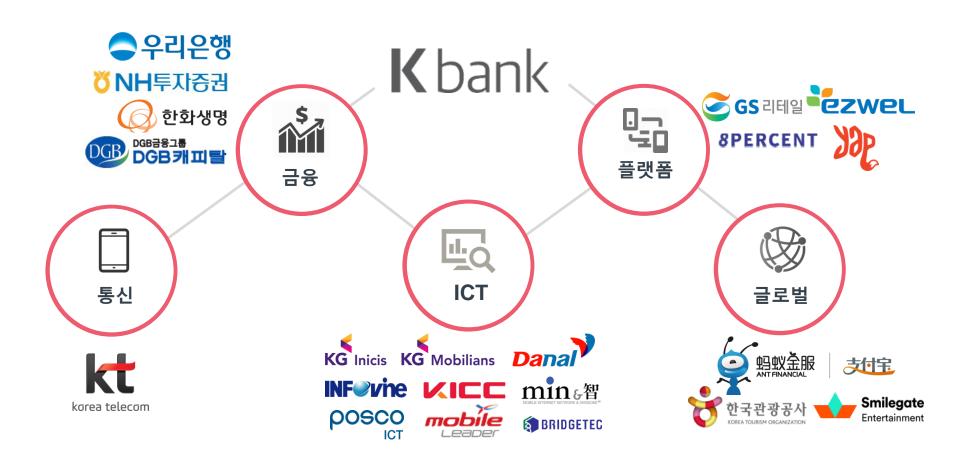
^{*} 자료: NICE 인터넷전문은행 인식 조사 (2015)

K bank 준비법인에서 K bank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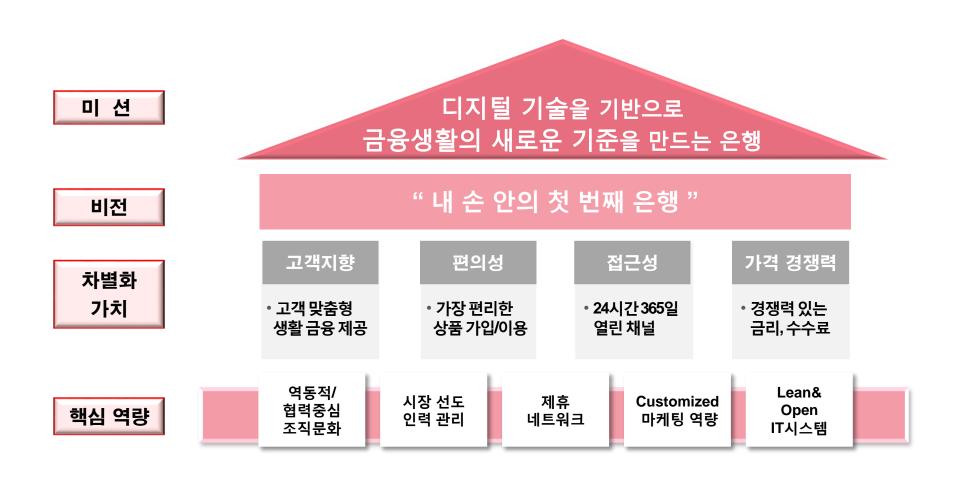
■ 남들이 가지 않은 새로운 금융에의 도전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K bank의 1년



■ 대기업에서 벤처기업까지 혁신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, 통신/금융/ICT/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 경험을 보유한 주주사



■ 금융-ICT 융합을 통해 금융생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은행 모델을 제시할 것





Kbank

새로운 금융의 문을 열다

OPEN

새로운 금융의 시대를 열다

loank

혁신의 방향성

■ ICT의 혁신적 속성을 극대화 시킨 100% 비대면 종합은행에 도전

1

100% 비대면 은행

24 X 365 접근 가능한 비대면 종합은행 2

ICT의 힘

모바일, 빅데이터 활용한 새로운 융합 비즈니스 3

생활 금융

일상 속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간 금융



■ 10분내 비대면 계좌개설에서 기존 은행 서비스의 전면 비대면화로 확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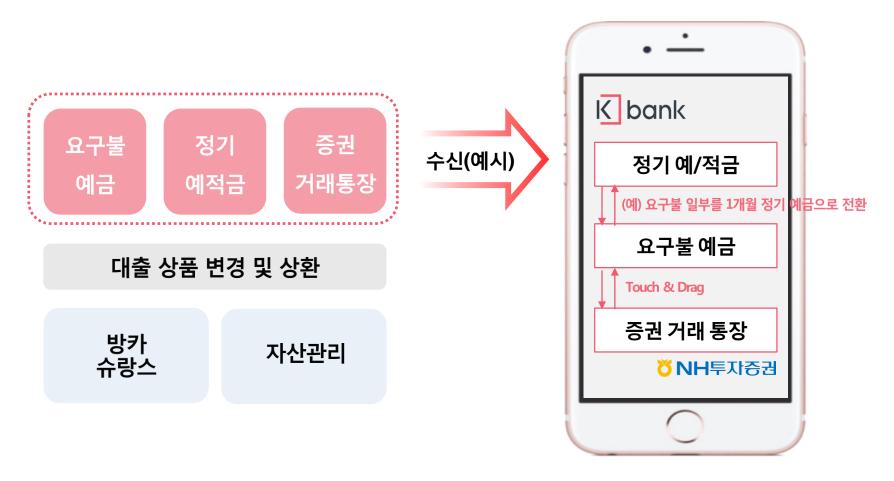
"K bank의 10분 모바일 계좌개설"



"100% 비대면 종합은행 지향"



■ 별도로 존재하던 상품을 모바일 한 화면 안에서 자유롭게 넘나드는 금융, 상품간 전환도 이제 지점 방문이 아닌 모바일 Touch & Drag만으로 가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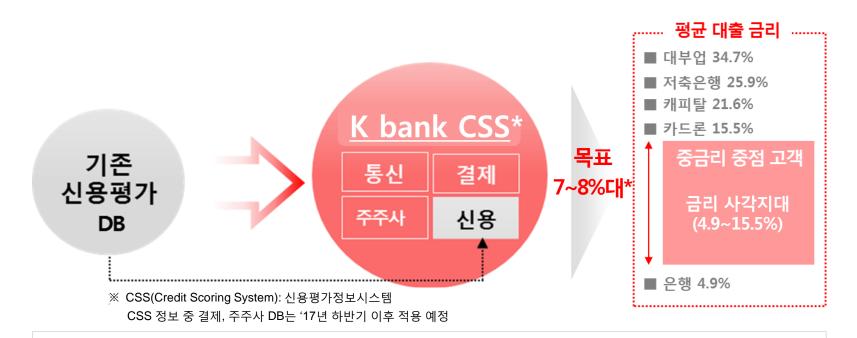
^{*} 참조: 증권거래 연계 서비스는 '17년 상반기 이후 출시 예정, 향후 감독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변동 있을 수 있음

■ 중신용 서민과 1,000만 금융 소외 고객들이 고금리로 고통 받고 있음

CB등급	전국민		Thin File				
	인원	비중	전체	18~29세	30~55세	56~90세	
1	9,196,098	21%	은행 대출 가능 '인구의 46%' 수준				
2	7,452,860	17%					
3	3,477,990	8%					
4	7,046,840	16%	3,624,279	606,110	1,171,704	1,846,466	
5	7,813,187	18%	4,729,866	2,450,055	990,232	1,289,579	
6	3,995,629	9%	2,108,193	600,834	744,666	762,692	
7	1,687,285	4%			•		
8	1,382,325	3%	1	1천만 Thin-File 고객			
9	1,494,215	3%	1	T전한 Time 교역			
10	388,567	1%	1				
전체	43,934,996	100%	10,462,338	3,656,999	2,906,602	3,898,737	

- 성인인구 절반 이상(54%)이 은행 대출에 어려움
- 금융 이력이 부족한 대학생, 주부 등 1천만 고객은 일괄 중신용 등급 적용을 받고 있음

■ 빅데이터 기반의 차별화된 신용평가로 Risk 낮춘 중금리 대출을 핵심 수익모델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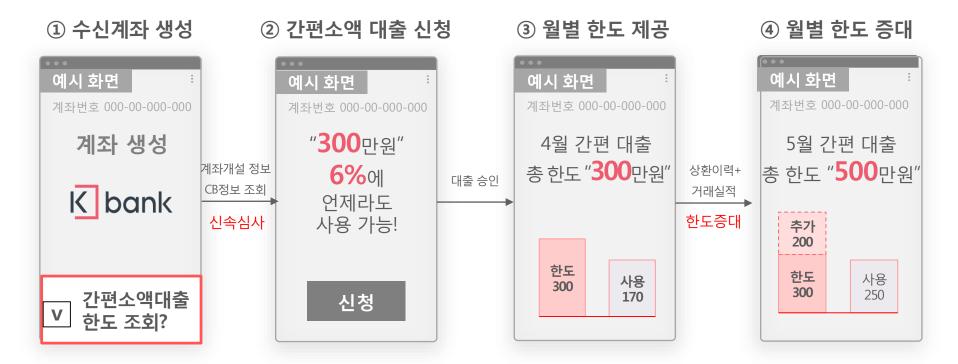


- 7~8%대 수준의 중금리 대출 시, 연간 1,000억원 이상**의 이자 절감 효과 가능
- 보증 보험 중심의 기존 중금리 대출과 달리, 차별적 CSS 통한 리스크 관리로 핵심 사업화 예정
- 전체 여신 사업의 30~40% 비중 수준으로 중금리 대출 시행할 계획

^{*} 상기 금리는 고객의 신용도와 금융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^{**} 중금리 시장 약 65조원X 제 2금융권과 K뱅크간 평균 금리 차이 약 13% 이상 X 국내 인터넷은행 침투율 약 3% X K bank점유율 = 약 1,300억원 절감 효과

■ 신용등급 하락 없이 가입/심사 절차가 간소화된 간편 소액 대출



- 제1금융권 상품으로 신용등급 하락 없이, 고금리 카드론 고객에 더 저렴하게 다가가는 상품
- 주주사 보유 정보 및 신용평가시스템 활용한 심사절차 간소화
- 상환능력/거래실적 따라 점진적으로 한도 올려 부실 Risk 방지

[※] 상기 화면의 금리는 예시이며,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24X 365 편의성 제공

야간/주말 포함 24시간 365일 서비스



Total 비대면 채널 혁신

어떤 채널에서도 고객을 알아주는



지털 기반의 **고객금융센터**

K bank

STT+ TA 등 ICT 기반 VOC 분석

고객의 숨은 니즈 분석한 VOC 대응



머신러닝/인공지능 활용한 '챗봇 '

고객에 먼저 찾아가는 채팅 기반 상담 서비스



■ 다양한 주주사 역량 활용해, 생활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간 금융 제공



^{*} 참조: 방카슈랑스(보험), 직불결제 등은 '17년 하반기 이후 출시 예정이며, 향후 감독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변동 있을 수 있음

■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용카드 없이도 어디서나 결제를 가능케 하는 저렴한 직불 결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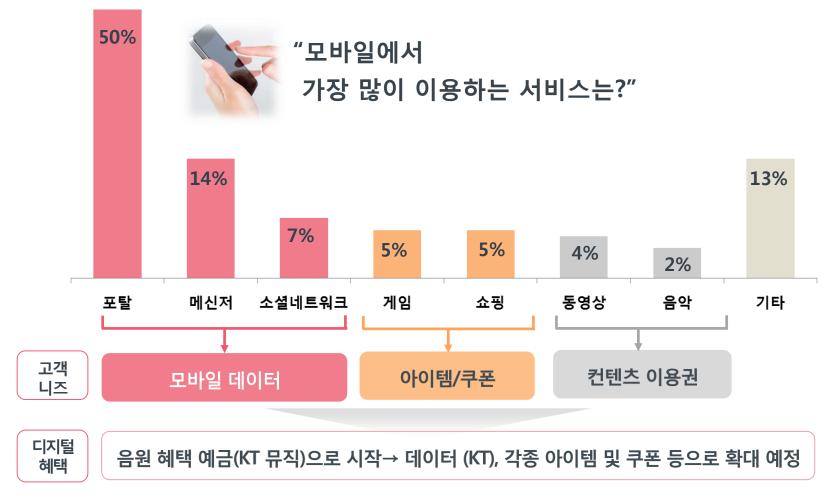


- 카드망 대신 은행망 통한 계좌이체 방식제→ 신용카드 대비 수수료율 0.8~0.9%p 절감
-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물론, 수수료의 대부분을 경쟁력 있는 고객 혜택으로 환원

[※] 신용-체크카드 결제액 중 직불결제 1% 전환시, 가맹점의 연간 수수료 혜택은 약 300억원 규모 추정

[※] 직불결제는 '17년 하반기 이후 출시 예정이며, 향후 감독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변동 있을 수 있음

■ 모바일 생활 중에 발생하는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디지털 혜택 제공



^{*} 자료: 모바일 주요 이용행태, K뱅크준비법인(2016)

■ 1분의 의무적 활동이 아닌, 고객의 일상에서 가장 쉽게 만나는 생활 금융을 꿈꾸다



* Source: 생활시간조사, 통계청(2016)

■ 주요 개인정보 전면 암호화 등, 더욱 강화된 보안시스템 구축 진행 중



주요 개인정보 암호화

모든 개인식별정보 암호화

- 주민등록번호, 계좌/카드번호, 전화번호 이메일 등 주요 개인식별정보 암호화 적용
- 기존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수준보다 강화



이중 시스템 구축으로 보안 수준 강화

- 기본 내부 업무망과 상용 인터넷망의 완벽한 물리적 분리
- 방화벽/백신 등 보안솔루션 이중화



■ 사전/사후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의 철저 운영으로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은행에 도전

SIGNAL 주요 AGENDA 단계별 소비자 보호 체계 확립 사전예방 단계 - 신규 상품 기획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사전 협의 체계 구축 금융소비자 보호 프로그램 관리 주의·경계 단계 - 자체 협의체 운영 통해 VOC, VOE(Voice of Employee) 분석 등을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 운영 수행함으로써 현안에 대한 신속 대응책 마련 사후 신속·집중 처리 단계 - 민원 업무 원스톱 처리 및 History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재발 방지 -민원관리시스템 구축/운용

고객 민원 Zero화를 목표로 철저한 소비자 보호 시스템 운영할 계획

No. 1 모바일 은행을 향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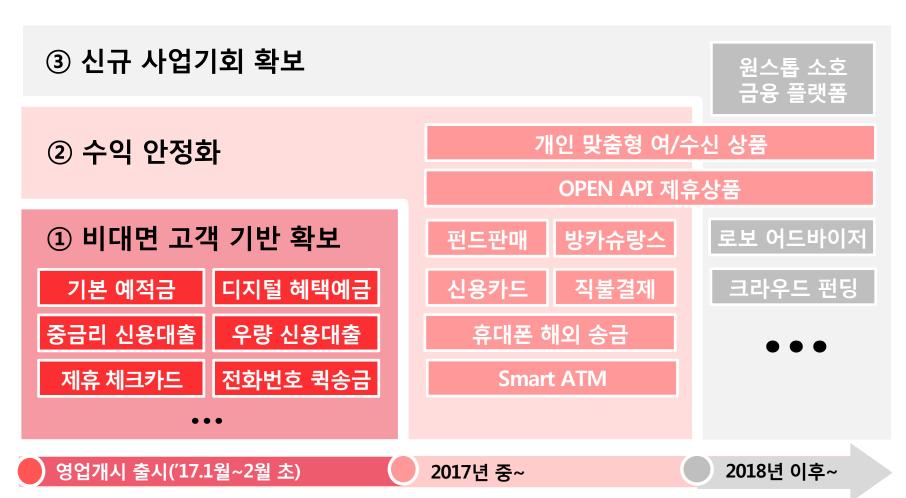
■IT 대외망 연동 및 점검 기간 거쳐, 빠르면 1월 말/2월초 오픈 예정



점검 기간

- 금융결제원 준사원 정식 승인(본인가 획득 필수) 통한 대외망 연동 작업 기간
- 당사 직원 등 제한된 고객 대상으로, IT/서비스 프로세스 등 전(全) 업무 점검 수행 계획

■향후 모바일의 혁신적 속성에 기반한 신규 상품을 단계적으로 출시할 계획



^{*} 참조: 중장기 BM은 향후 감독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변동 있을 수 있음

■ 창의적이고 유연한 ICT 융합형 인재 선발 중→ 성과에 기반한 운영 혁신 지속할 계획



융합형 인재 선발 및 육성

- ICT 역량을 겸비한 금융 전문가 선발 및 육성
- 인터넷 은행에 적합한 창의적 IT전문가 다수 확보

비대면 한계 극복을 위한 역량 강화

- 고객금융센터 등 비대면 관련 분야 인재 집중 육성
- 모바일 금융 보안 전문가 다수 확보

성과주의에 기반한 성과연봉제 도입

■ 인터넷은행의 성공적 안착과 향후 증자를 책임질 대주주 확보 위한 은행법 개정 등 필요

혁신의 주체, 그러나 4%의 딜레마

kt 4%





BIS 준수 관련 증자 위해서도 법개정 등 절실

- BIS 비율 준수 위해 초기 3년간 약 2~3,000억원 증자 필요
- 이 같은 증자를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대주주가 필수적인 상황

감사합니다.

